

2017. 6

Vol. 42

BIZart 비자트

Business & Art Magazine for CEO

HOT ISSUE

베트남 통관 절차와 관세 혜택

CEO INTERVIEW

장애인기업 무궁화전자 김기경 대표

FINANCIAL

금리와 경기변화 따른 자산관리 전략

주목 이 작가

Wavering, 흔들리는 -YJ 작가

슈퍼 컬렉터

4인의 할리우드 컬렉터





Business

- | | |
|--------------------------|---------------------------|
| 03 HOT ISSUE - 세계시장 | 베트남 통관 절차와 관세 혜택 |
| 06 BIZ REPORT I - 법무 | 기업의 채권관리...거래처 신용평가 방법 |
| 08 BIZ REPORT II - 노무 | 장래위기 대응, 합리적이면 정리하고 가능 |
| 10 CEO INTERVIEW - 경영 | 장애인기업 무궁화전자 김기경 대표 |
| 13 FINANCIAL - 자산관리 | 금리와 경기변화 따른 자산관리 전략 |
| 16 REAL ESTATE - 초과이익환수제 | 유예기간 종료 앞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
| 18 FOCUS - 세무 | 수익형 호텔 완공 전 부가가치세 돌려받자 |
| 20 NEWS BRIEFING - 경제뉴스 | 산업부 고용부 미래부 분산 중소기업가 가져와야 |

제호 BIZart 비자트

통권 Vol. 42

발행처 (주)에스엠비넷 (주)예술만세

발행일 2017. 6. 1

기획 중기이코노미, 키스갤러리

경제콘텐츠 손채윤, 박현진, 채민선, 이가영

김성화, 김진원

아트콘텐츠 김현성, 안진국, 이유미

디자인 환크리에이티브컴퍼니

주소 (137-872)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55, 2층 201호

(서초동 고금빌딩)

전화 02)525-7021 (주)에스엠비넷

02)745-0180 키스갤러리

팩스 02)6499-1391

월간 6,000원

등록 2013. 12. 11(등록번호 서초 라11599)

이 책에 실린 어떤 내용도 무단 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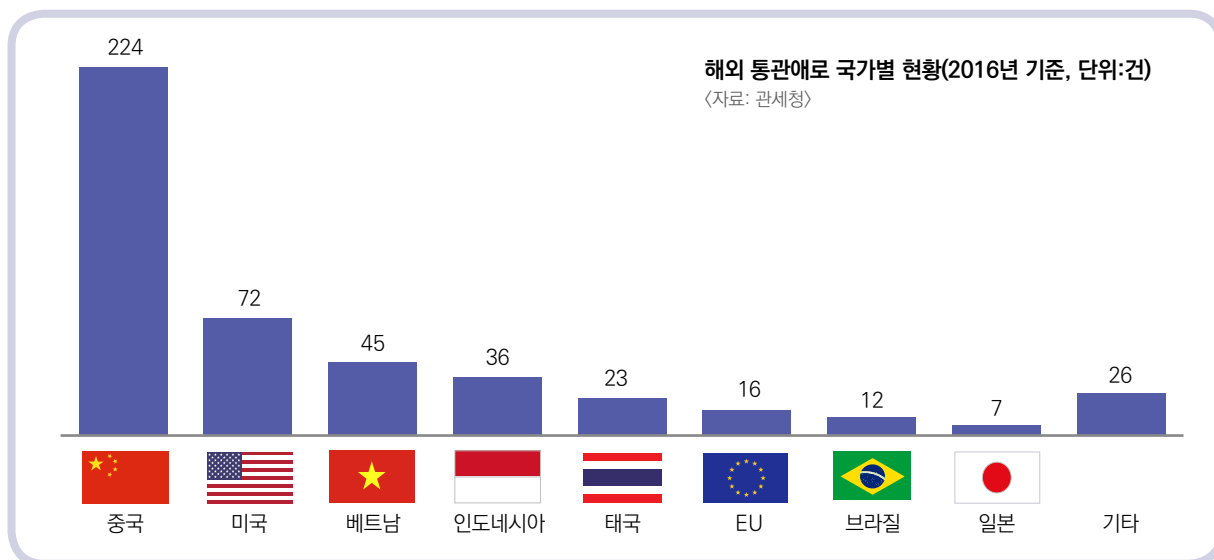
- | | |
|-------------|-----------------------|
| 21 주목 이 작가 | Wavering, 흔들리는 -YJ 작가 |
| 26 슈퍼 컬렉터 | 4인의 할리우드 컬렉터 |
| 28 예술 별*방 | 빛과 공간의 예술가 |
| 30 관념미학 어워드 | 관념미학 어워드 수상작 |
| 32 한국화 읽기 | 산수를 거닐다 |
| 34 예술가의 뮤즈 | 조지아 오키프와 알프레드 스티글리츠 |

글.
중기이코노미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투자용 공장설비 기계류, 임가공 원자재 관세 면제

베트남 수출입기업이 알아야 할 통관절차와 관세혜택

베트남은 9500만명이 넘는 인구와 풍부한 자원 그리고 연평균 5~6%의 높은 성장률로 글로벌 기업의 유망 투자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4대 수출국이기도 하지만,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어려움도 적지 않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총 461건의 해외통관애로 가운데 베트남에서 발생한 통관애로만 45건(9.8%)에 이른다. 중국과 미국에 이은 세 번째다.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급한 물품의 경우 주말에 통관이 어려운데다, 관련 법령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향후 통관이 더 까다로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베트남에 진출하려면 통관 절차와 요건에 대해 미리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전자통관 보다 서류신고 통관 편해...알쏭달쏭 수출입 통관절차

통관이란 국경을 이동해 운송되는 물품을 수입, 수출,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각국은 통관 절차를 통해 국제 물품의 이동을 규제하고 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관세청과 유사한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의 관세총국이 통관 절차를 수행하고, 수출입 관세 및 기타 세금 징수 등을 담당한다. 전국 시·성에 35개 관세국(본부세관)이 설치돼 있다. 이와 함께 성급·지방·시급 세관의 산하기구인 국경감시소와 세관출장소가 세관 업무를 돕고 있다. 지방관세 조직이 각 직할시 및 성의 소속으로 돼 있어, 관세부와 집행 등이 상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관 직원 또한 성·세관별로 자율적으로 선발한다. 그러다보니 지역별로 업무 처리와 속도가 다르다.

해외에서 베트남에 도착한 모든 물품이 수입통관 대상이 된다. 관할지 세관, 입항지 세관 등 2회에 걸쳐 통관이 진행되며, 통관 단계에서 관세가 부과된다.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는 크게 수입신고→세관 서류심사→물품 검사→관세 등 제세 납부→물품 반출 순서로 진행된다. 통상 5~7일이 걸린다.

수입자는 수입물품이 국경관문에 도착하기 전 또는 국경관문에 도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통관을 대행해 주는 관세사 제도는 있지만 활성화 돼 있지 않다. 따라서 주로 물류업체 등을 통하거나, 업체 자체 통관 전담직원을 뒀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품을 하역하는 항만의 세관에서 통관을 진행하면 된다. '전자 통관 시스템(E-customs)'이 2014년 도입됐지만, 시스템 운영이 매끄럽지 못해 서류 신고방식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좋다.

수입신고할 때 수입신고서와 함께 대외무역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수입화물 허가증(I/L) 또는 각종 증명, 도착 통지서(Delivery Order D/O), 항공 운송장(Airway Bill), 포장 명세서 (Packing List), 송장, 기타 세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수입신고서는 신고일로부터 15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세관적발 전 또는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신고일 60일 이후 혹은 60일 이내라도 세관에 신고한 내용과 달라 적발되면 페널티가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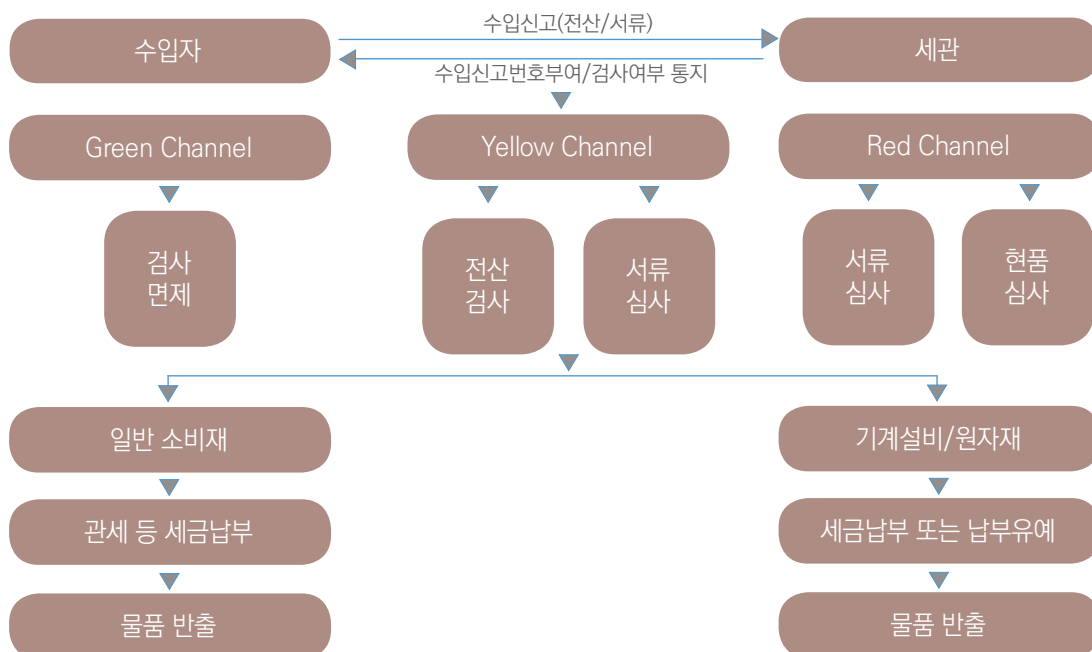
수입업자의 신용도, 물품의 위험도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입화물을 검사한다. 신속한 통관을 보장하고 위험의심 품목을 집중 검사하기 위해서다. 저위험 등급을 받는 경우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평소 관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게 좋다. 수입화물 검사는 서류심사(수입신고서와 제출서류간의 일치 여부 확인)와 현품검사(직접 수입물품 확인)로 나뉜다. 현품검사시 세관공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수입화물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샘플을 채취한다. 통상 수입화물의 10%가 현품검사 대상이다. 농산물, 수산물 등 특정품목 또는 장기간 동안 통관기록이 우수한 수출가공지역의 경우 검사를 면제받는다.

통관절차 위반 또는 관세법 위반 등의 전력이 있는 수입자의 경우 전수조사가 이뤄지며, 베트남 정부가 강제하는 검사·규격·인증 대상품목은 지정된 장소에서 샘플을 채취, 검사한 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통과할 수 있다. 예컨대 화장품·식품 등은 보건부에서, 유유나 케이크·가전제품(주전자·밥솥) 등은 산업자원부에서, 3세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난감은 환경부에서 추가적으로 검사한다.

통상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의 외국물품을 세관의 관리 하에 장치, 검사, 판매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구역)에서 반출하기 전에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및 기타 내국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수입목적 등에 따라 면세 또는 납부유예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자목적의 공장용 설비 및 기계류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 납부유예 또는 수출 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가 있으면 30일 납부유예를 할 수 있고, 베트남 정부 구매품의 경우 5일 더 연장이 가능하다.

베트남의 수출입 통관절차

(자료: 코트라)



수입화물 검사제도 등급 〈자료: 코트라〉

구분		요건	심사절차
Green		저위험 수입물품	수입신고 이외에 별도의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가 면제됨
Paper-Yellow	E-Yellow	- 수입된 재화가 면세대상인 고정자산 성격의 기계장치류인 경우 -수입자가 관세법을 성실히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예외적)세관의 별도 요구가 있는 경우, 서면심사 및 현품검사 진행	전자서류를 세관으로 전송해 전산으로 서류 심사
	Paper-Yellow		종이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서면으로 서류 심사
Red		고위험 수입물품	-서면서류심사 및 현품검사 진행 -현품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 ① 전수검사 대상 ② 무작위로 수입물품 수량의 10% 검사대상(위법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위법사항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내로 검사 확대) ③ 무작위로 수입물품 수량의 5% 검사(위법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위법사항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로 검사 확대)

수출입기업이 활용할 만한 관세 면제 및 유예 제도

베트남은 국내외 투자 촉진, 수출진흥, 산업발전 등 경제·사회·문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세 면제 및 유예 제도를 두고 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일부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정기간 동안 업무수행에 사용하기 위해 일시수입-재수출 또는 일시수출-재수입되는 기계, 설비, 작업용구 ▲가공계약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가공 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외국에서 가공을 위해 수출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 ▲투자권고 또는 공적개발원조사업(ODA) 투자계획의 고정자산 형성을 위한 수입물품 등은 면세 대상물품이다. 이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수입통관 시 면세를 신청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외국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를 위한 공장설비용 기계류인 고정자산 ▲투자기획부에서 승인받은 수입계획에 따라 수입하는 공장설비용 중고 기계류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관세가 면제된다.

공장설비용 기계류의 면세를 받으려면, 외국계 투자기업은 사전에 각성의 투자기획부로부터 투자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투자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60일 동안 유효하므로 이 기간 내 수입계획을 신청해야 한다. 통상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입계획이 승인된다. 투자기업은 승인일 이후 해당 공장설비용 기계류 및 장비를 면세로 수입할 수 있다.

임가공 계약을 체결해 공급받은 원자재 등도 관세가 면제된다. 또 조선, 기계·장비제조, 농수산물가공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관할세관을 통해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업체가 수입 전 세관으로부터 미리 납부유예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이 완료된 후 수출신고필증 및 소요량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 유예절차를 마무리시켜야 한다. 수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세관으로부터 유예된 관세와 지연납부 벌금을 추징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수출용 원부자재 중에서 임가공 목적이 아닌 일반 무역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수입할 때마다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입신고 시 수출용 물품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출 이행기한에 제한이 없으며, 수출 후 1개월 이내에 수출신고필증 및 소요량 증명서를 첨부해 세관에 수출 사실을 증명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관세 환급 신청시 반드시 선입선출방식에 따라 소요량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수입된 원부자재를 수출용 원부자재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 사실을 증명하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수출가공구 또는 공업단지, 경제지역내 설립돼 생산품 모두를 수출하는 EPE(Export Processing Enterprise)기업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도 관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베트남의 경우 법률이 통합되지 않았고 지역별로 상이한 규정을 따르고 있어, HS코드 및 관세 적용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품목 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해 불만 하다. 베트남 정부는 최초 수입건에 한해 HS코드, 원산지, 과세가격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수출입 종합 인증 우수업체(AEO)'로 인정받으면 ▲통관시 서류 및 물품 검사 면제 ▲세관 통관절차 우선권 부여 ▲관세 환급신청시 '선회급 후심사' ▲최대 40일까지 관세납부 유예 ▲통관 사후심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2년간 관세 및 기타 세법 규정, 회계관리 및 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준수한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직전 2년간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 실적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한·베트남 FTA 규정도 놓쳐선 안된다. 베트남이 체결한 다른 FTA의 경우 특혜관세 사후적용은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까지만 인정되나, 한국의 경우 1년까지 인정된다. 따라서 수입 당시 특혜관세를 받지 못했더라도 수입일 이후 1년 내에만 특혜관세를 신청하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BIZart

글.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kohyg75@hanmail.net



신용평가사, DART, 등본 통해 신용상태 파악하라

공개된 자산내역도 확인 필요...기업의 채권관리 '거래처 신용평가 방법'

채권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기존의 오래된 거래처라고 해서, 다음 거래에 지급불능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항상 거래처를 평가하고 거래처의 신용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재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거래처의 신용이 부실하다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거래처의 신용뿐만 아니라, 거래처가 제공한 담보가 있다면 이 담보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시간에 따라 담보의 가치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신용평가기관을 이용한 거래처 신용평가 방법

거래처의 신용평가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외부기관을 통해 신용평가를 하는 방법이 간단하다. 신용평가사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한국기업데이터(www.kedkorea.com),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nfo.co.kr), 나이스디엔비(www.nicednb.com), 이크레더블(www.ecredible.co.kr)이 대표적인 사이트다. 이중 나이스디엔비는 국제거래를 할 때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우리 회사와 거래를 하려고 하거나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의 신용조사가 가능하다. 물론 유료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무료인 경우에는 제공되는 정보가 적기 때문이다. 건별로 이용도 가능하고, 월 정액제로 이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이트에 거래처를 등록해 두면, 거래처의 신용평가가 나빠지는 경우 통지를 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신용평가기관을 통해서 거래처의 신용을 평가해 보면, 적어도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걸러낼 수 있다.

특히 대표자의 신용보고서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다. 거래처 회사 자체의 신용정보도 중요하지만, 대표자의 신용보고서도 때로는 필요하다.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대표이사의 재력·신용도가 기업의 신뢰성을 평가하는데 절대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DART 전자공시 활용, 재무상황 평가하는 방법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 외에 'DART 전자공시'를 이용해서 거래처의 신용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이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회사의 재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회사의 재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는 회사가 제출하는 정기보고서와 회계법인이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다. 상장법인의 경우 정기보고서 제출 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므로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는 정기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장법인 이 아닌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직접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DART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은 신용평가회사 보다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를 더 빨리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감사보고서나 분기보고서는 공시가 되는대로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즉시 확인을 해 대처할 수 있다. 알림서비스를 이용해 관심기업으로 등록하면, 해당기업의 공시 업데이트에 대한 '알림'을 받아볼 수 있는데 이 서비스를 추천한다. 회사의 주요 거래처라면 이런 알림을 받아볼 수 있도록, 미리 등록해 놓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거래처의 자산상황을 파악해 신용을 평가하는 방법

거래처가 영세한 업체이거나 신용평가기관에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라면, 간단한 방법이 있다. 사람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법인에게도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등록번호가 있다. 회사의 상호만 알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법인등기부등본에는 회사의 기본정보들이 담겨 있다. 회사의 주소, 발행주식의 수,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임원이 누구인지, 대표이사의 주소 등이 있다.

우선 법인등기부등본의 대표이사 항목을 살펴본다. 회사와 거래를 하는 대표자와 등기부상 대표자가 다르다면, 주의해서 봐야 한다. 회사가 이 회사와 거래를 해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큰 금액 그리고 긴 기간의 외상거래는 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대표이사나 이사가 자주 바뀌는지도 눈여겨봐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나 임원이 자주 변경되는 것은 일종의 '폭탄 돌리기'인 경우가 많다. 특히 대표이사가 자주 변경되는 것은 회사의 부실징후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회사의 주소 소재지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본다. 일반 부동산의 등기부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는다. 회사가 소재한 곳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회사가 자신의 건물 혹은 사무실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이나 다른 대출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보면 된다. 물론 대출이 전혀 없이 깨끗하다면, 아주 좋은 거래처다.

그런데 사실 회사의 경우 대출을 늘 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의 대출이 있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개인 채권자로부터 빌린 대출, 일반 사채로 보이는 대출 때문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그 외 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회사의 공장 혹은 기타 시설의 주소지를 알아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대표이사 개인의 자산내역도 확인해야 한다. 물론 거래처 대표이사 개인의 자산내역을 조사할 권한은 없다. 그래서 공개된 정보의 범위 내에서 파악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주소는 법인등기부에 등기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인등기부를 살펴보면, 대표이사의 주소가 기재돼 있다. 이 주소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는다.

해당 주소의 부동산이 대표이사의 소유라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같은 절차로 살펴보면 된다. 특히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이 있는지, 채권자로부터 가압류·압류된 사실은 없는지, 사채를 쓴 흔적이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 체납·가압류 등의 흔적이 오래된 것이면 상관없겠지만 최근에 등재된 것이라면, 계속 거래를 유지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BIZart**

글.

노동OK 김성호 상담실장

seekhoper@gmail.com



장래위기 대응, 인원삭감 합리적이면 정리해고 가능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기준, 협의 등 4가지 요건 갖춰야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해고라 한다. 해고사유를 기준으로 유형을 나눠보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와 기업의 '경영상의 필요'로 인한 정리해고가 있다.

사용자가 경영상황이 악화되거나 또는 기업구조개선 등을 이유로 근로자수를 줄이기 위해 정리해고를 실시한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본인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다. 또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정리해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 판례법리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했으나, 1997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는 명칭으로 입법돼 시행되고 있다.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기준과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해고하려는 날 50일 전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는 등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4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정리해고를 인정한 초기 판례에 따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해야 했다(대법원 1989.5.23 선고, 87다카2132). '도산회피설'로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해고 정당성에 대해 엄격했던 법원은 이후 인원삭감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합리성필요설'로 입장을 완화한다. 정리해고를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8647).

판례 입장이 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행정해석을 바꿨다. 종래 고용노동부의 '해고에 관한 업무지침(근기 1451-24180 1984.12.10.)'은 "(가)감원을 하지 않으면 회사가 도산할 위기에 있거나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불필요한 사유에 의한 일부 작업부서의 폐쇄로서 동 부서 근로자를 타 부서에 전직시켜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에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법원이 합리성필요설을 제시한 이후 고용노동부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이 있었는지, 생산성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과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을 이유로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근기 68201-586 1998.3.28.)" 여부를 기준으로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도산회피설과 합리성필요설 이후 법원은 2002년 예술의전당 정리해고 사건(2002.7.9. 선고, 2000두9373)에서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리해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같은 입장이다. '장래대비설' 또는 '감량경영설'이 현재 법원의 주류 입장이다.

해고회피노력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이전에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해고회피 방법의 예를 보면 경영합리화를 통한 비용절감, 연장근로 등의 축소, 근로시간 단축, 임금삭감, 해고 예정 직종에 대한 신규 채용의 중지, 단시간근로자·임시직 등의 재계약 중지, 배치전환, 사외파견, 재교육·훈련의 실시, 조업단축 또는 일시 휴업(휴직),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이 있다.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해고회피 조치로 인해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및 대상자 선정

해고회피노력과 함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때 해고기준과 대상자의 선정은 확정적, 고정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에 따라 발생하는 경영위기의 강도 및 정리해고를 실시해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대법원 2002.7.9. 선고, 2001다29452).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선정기준을 충분히 논의했는지 여부, 회사 기여도, 근속연수(장기근속자 우대), 부양가족, 근무성적, 능력수준, 연령, 고용형태 등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50일전까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며, 통보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가급적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리해고 실시의 이유를 비롯해 해고회피방법,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이 협의의 대상이다.

이상 4가지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해 유동적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 여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3.11.13. 선고, 2003두4119). 예를 들어 해고 실시 50일전까지 통보 및 협의 날짜를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참고로 다수의 인원을 정리해고할 때에는 해고발생 30일전에 고용노동부에 해고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은 10% 이상,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00인 이상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신고대상이 된다. BIZart

글.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느리지만 품질 자신” 더불어 오래가는 회사 만든다

개발, 사출, SMT, S/W ‘원스톱’ 생산... 장애인이기업 무궁화전자 김기경 대표

“우리 회사 휠체어농구단이 고양시장컵 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기분이 좋아 늦게까지 선수들이랑 회식을 했죠.”

무궁화전자 김기경 대표는 지난해 7월 창단한 무궁화전자 휠체어농구단이 짧은 시간에 좋은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한 자랑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장애인이기업 최초의 실업팀에서, 장애를 가진 직원들이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 시간을 내 연습하며 겪는 힘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봐왔기에 더 값진 성과였다.

무궁화전자는 1994년 지어진 사회복지법인 무궁화동산의 생산시설 이름이다. 1993년 삼성그룹이 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을 하고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장애인 전용 근로시설인 무궁화동산을 설립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지금은 연매출 200억원을 달성하며 품질로 인정받는 강소기업이지만, 그동안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무궁화전자의 사업은 제조, S/W, SMT, 사출 등이며, 전 직원 180명 가운데 장애인이 126명으로 70%를 차지한다. 중증장애인은 79명으로 전 직원의 63%다.

1 _____ 무궁화전자 김기경 대표(사진:중기이코노미)



삼성의 출자·생산위탁으로 시작했지만 IMF로 적자경영 '위기'

무궁화동산이 처음 설립됐을 때만해도 삼성의 출자금과 삼성의 생산위탁으로 운영이 가능했다. 하지만 설립 후 얼마 안돼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삼성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휘청이며 무궁화동산도 어려움에 처한다. 삼성전자 수원공장은 생활용품 생산을 종료하고, 지방·해외 등지에서 생산을 시작했다. 자연히 무궁화전자의 일감은 줄고, 적자경영이 지속됐다.

“2001년 입사를 했는데, 당시까지도 IMF의 여파가 이어졌죠.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 체조를 하거나 사가를 연습할 정도였으니까요. 일감이 조금 생기면 모아뒀다가 외부에서 손님이 올때 보여주기 위해 잠깐 생산시설을 가동 시켰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1998년 퇴직해 다른 길을 걷던 김 대표는 2001년 무궁화전자 관리과장으로 입사했다. 입사당시 김 대표는 무궁화전자의 경영상황에 막막함과 당혹감이 앞섰다고 회상했다. 삼성에 납품하는 것에만 의존해서는 이 회사가 더이상 버티나갈 수 없고, 이곳 장애인 직원들도 거리에 내몰릴 것이란 위기감이 들었다.

SMT 자동화라인, 신제품 개발, 사출사업으로 흑자전환

무궁화동산 설립초기 멤버들도 떠나고, 삼성이 무궁화동산을 계속 지원해야 하는 명분도 희미해져가는 시기였다. 무궁화전자가 자립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함께 TF팀을 구성해 대책을 고심했다. 치열한 논의 끝에 무궁화전자는 2012년 삼성으로부터 16억 8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회사내 SMT(Surface Mounting Technology) 자동화시스템 2개 라인을 설치했다. SMT는 표면실장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전자기기 조립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기술이다. SMT 자동화시스템은 인쇄회로기판(PCB) 위에 반도체나 다이오드, 칩 등을 부착해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SMT 자동화 라인 가동 후 무궁화전자는 삼성에 의존하는 납품에서 벗어나 다른 회사로부터 수주받아 일을 할 수 있었다. 2013년에는 사출공장을 준공하고 사출사업을 시작했다. 그동안 외주를 맡겼던 사출을 자체적으로 생산함으로써 물류비를 줄이고 매출을 늘릴 수 있었으며 고용도 늘었다.

이와함께 무궁화전자는 삼성과 2년에 하나의 청소기 모델을 공동개발해 OEM공급을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06년에는 무궁화전자만의 독자적인 스팀청소기를 개발해 생산했다. 이후에도 무궁화전자는 전기히터, 선풍기, 무선핸드청소기 등의 신모델을 출시했다.

무궁화전자의 신제품들은 값싸고 품질이 좋았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삼성이나 해외 브랜드와 경쟁이 되질 않았다. 메이저 홈쇼핑을 통해 판매를 확대해보려고 했지만 수수료가 높은데다 대기업 제품들 틈에서 중소기업 제품이 두각을 나타내기는 어려웠다.



2 무궁화전자는 독자브랜드 '바로바로 무선진공청소기'를 출시해 청소기만 5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사진:무궁화전자)



3 무궁화전자의 청소기 생산라인. 전 직원 180명 가운데 장애인이 126명이다.〈사진:중기이코노미〉(좌)

4 2012년 SMT 자동화 라인 가동 후 무궁화전자는 삼성에 의존하는 납품에서 벗어나 다른 회사로부터 수주받아 일을 할 수 있었다.〈사진:중기이코노미〉(우)

5 무궁화전자는 2013년 사출공장을 준공하고 사출사업을 시작했다. 그동안 외주를 맡겼던 사출을 자체적으로 생산함으로써 물류비를 줄이고 매출을 늘릴 수 있었으며 고용도 늘었다.〈사진:중기이코노미〉(아래)



OEM에서 독자브랜드 '바로바로 무선진공청소기' 출시

제품개발비만 7~8억원이 들어간 '바로바로 무선진공청소기'도 그렇게 사장되는 듯 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공영홈쇼핑이 개국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장 먼저 아이홈쇼핑에 입점을 추진했다. 현재 바로바로 무선진공청소기는 무궁화전자의 효자상품이자 아이홈쇼핑의 베스트셀러다. 바로바로 무선진공청소기는 지난 2년 동안 아이홈쇼핑을 통해 4만여개를 판매해 4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바로바로 청소기 전체 매출액은 50억원을 넘었다.

"아이홈쇼핑에 입점하고도 처음에는 눈에 띄는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하고, 중소기업이 홈쇼핑 판매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검증사업을 시작했다. 삼성전자의 어플리케이션 마켓인 '삼성앱스'에 입점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삼성전자의 모바일기기에 연동이 되는지 검증하는 사업이다. 대부분 장애인으로 구성된 50여명의 소프트웨어 검증팀은 하루 1200여개의 어플리케이션 검증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품질 자신, 연매출 500억 목표... "장애인 사업장은 대규모여야"

"장애인기업 제품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직원들은 이곳에서 오래 일했고 각 분야에서 전문가 수준입니다. 느리지만 정확하고 단단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무궁화전자의 제품은 삼성의 품질검증 시스템이 적용된 제품들이어서 품질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김 대표는 현재 연매출 200억원에서 중장기적으로 500억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 목표를 위해 2개의 신제품을 개발 중이고, 공장규모도 키워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무궁화 전자는 수익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아니라, 수익이 나면 장애인을 고용하고 그들의 복지와 처우에 쓰는 기업입니다. 장애인 사업장은 대규모화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무궁화전자에도 경미한 장애인부터 중증 장애인까지 다양한 직원들이 있죠. 그들이 개별적인 특징과 장점에 맞게 업무를 하려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넓어야 합니다." **Bizart**

글.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현수 팀장
c0138@wooribank.com

가계부채·내수부진... 금리 내려야 하지만 상승 대비하라

미국 금리인상·외환시장 영향...금리와 경기변화 따른 자산관리 전략

유럽의 '버핏' 주식의 신이라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Andre Kostolany, 1906~1999)는 헝가리에서 태어나 유럽 전역에서 활동한 투자의 대부다. 35세에 부자가 돼, 은퇴를 결정했다가 우울증을 얻었다. 그 후 작가와 저널리스트로 인생 2막을 살면서 13권의 책을 펴내, 전 세계적으로 300만부 이상 팔렸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는 책은 출간 즉시 독일 베스트셀러 1위, 최장기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른다. 93세에 쓴 책인데, 가장 유명한 저서이며 서문을 쓰지 못하고 사망했다.

그는 돈과 투자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원칙이 있었다. 그가 말하는 투자자의 4가지 덕목은 돈, 생각, 인내 그리고 행운이다. 그의 원칙을 요약하면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하며, ▲자신의 결정을 믿고 지킬 수 있는 인내심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이 따라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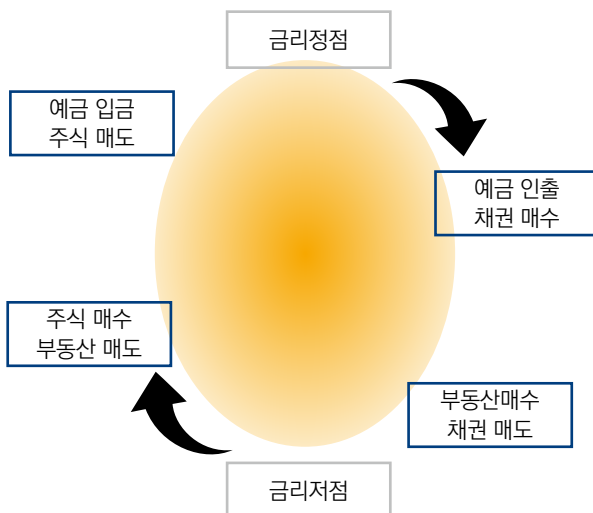
코스톨라니의 투자비법을 요약하자면 결국 현재의 주식시장이 어느 국면에 있는지 정확히 판단한 후, 하강운동의 마지막 국면과 상승운동의 첫 번째 국면에서 자신의 돈으로만 주식을 매수하고 인내심을 갖고서 'Buy & Hold' 전략을 구사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어 너도 나도 주식을 사려고 아우성 칠 때는 주식을 팔고 주식시장에서 손을 떼는 'Sell & Wait' 전략을 이용하라는 것이다.

그는 단기간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다. 첫째는 부유한 배우자를 만나는 방법, 둘째는 유명한 사업 아이템을 갖는 것, 셋째는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제대로 된 투자를 위한 기본적인 자산관리 전략에 대해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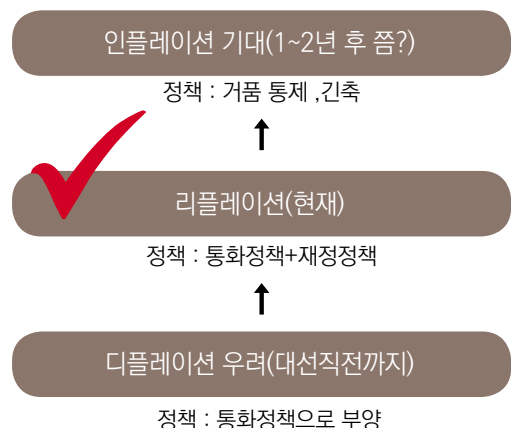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모형으로 투자전략을 설명하면, 먼저 달걀모형의 오른쪽 하단은 금리저점에 인접하고 불황기에 해당될 때다. 저금리 시기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동산의 매수전략과, 금리저점이 예상될 때 채권의 매도전략이 필요하다. 모형의 왼쪽 하단은 금리저점을 통과하고 불황에서 서서히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이다. 금리상승으로 대출비용 증가가 예상돼 부동산의 매도전략과, 경기가 살아나는 시점으로 주식의 저점 투자가 선제적으로 필요한 때다.

모형의 왼쪽 상단에 오면 서서히 주식을 매도하고, 금리정점기에 도달하면 예금 이자율이 높아지므로 자산을 예금으로 운용한다. 금리정점을 지나고 서서히 경기가 하강하면 예금을 인출해서 채권에 투자한다. 이유는 금리가 하락할 때 채권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모형]



[미국의 경기 상황]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모형 투자전략...변수 염두

이상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투자의 세계에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고 수많은 시장 참여자의 심리가 지배하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항상 변화무쌍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모형에서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다. 결국 지나고 나서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작년 5월 정도에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금리가 크게 이슈가 됐다. 그 후 1년 정도 되는 현재 금리저점을 통과하고 상승기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전세계 경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곳은 미국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입 의존도가 다른 국가들보다 높기 때문에 더욱 세계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림에서 오른쪽은 미국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얼마 전까지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해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했으며, 아직까지 경기가 과열되는 인플레이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리플레이션 단계에 있다. 즉 그림으로 판단할 때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주식 투자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진다.

자산가격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미국연방기금금리다. 현재 0.75%~1.00% 인데 정책금리의 방향과 상승속도에 따라 외환, 주식, 채권, 금 등의 가격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의장이 2019년까지 미국 기준금리를 3%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경제가 완전고용 상태로 접어드는데다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어 더 이상의 과열을 막겠다는 게 이유다. 옐런 의장은 지난 스탠포드대학 연설에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통화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통화긴축이 늦어지면 인플레이션과 함께 금융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금리가 올라간다는 의견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더 관심을 받는 것은 속도다. 점진적으로 올라가면 큰 변화가 없지만, 빠른 속도로 오르면 자산관리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 금리 상승의 속도를 예상할 수 있을까? 아마도 거시지표 즉 고용, 물가, 실질GDP성장을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Fed는 자산축소를 예고하고 있다. 양적완화를 통해 사들인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 등 4조5000억달러 규모의 자산축소가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내려 경기부양해야 하지만 대외환경으로 상승도 대비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최근 들어와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와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해야하지만, 대외환경을 봤을 때 상승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 정책금리가 급격히 오르면 신흥국의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의 정책만으로 국제 및 회사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다. 이는 '강' 달러 현상을 유발했고 원달러시장에도 환율이 오르게 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강' 달러가 단기적으로 미국 수출업체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약' 달러 지지선언을 한 후 달러 강세가 진정됐다.

외환시장에도 다양한 변수가 있어 환율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금리는 한마디로 하면 돈의 가격이다. 즉 미국금리가 오르면 미국 돈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상대 통화인 원화는 약세(환율상승)가 된다.

또한 매년 4월, 10월 미 재무부에서 발표하는 환율조작국 이슈 때문에 4월에 원화강세 현상이 일부 나타났다. 환율조작국으로 선정하는 조건은 세 가지 정도 있다. 첫째는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 이상이고, 둘째는 해당국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GDP 3%이상이며, 세 번째 조건은 자국 통화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한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한 경우다. 현재 우리나라는 두 가지가 해당되지만 미국 입장에서 언제든지 협상의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로 보여진다.

달러 자산이 필요하다면, 환율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이므로 목표 환율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저점 분할매수하고, 금액이 적을 경우 외화예금 등으로 운용하고 자금이 축적되면 자금 운용계획에 따라 달러보통, 달러ELS, 역외펀드 등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환율이 많이 올라가면 원화로 환전해 이익을 실현할 수도 있다.

금 투자 관심...달러강세가 되면 국제 금 가격 하락

금 투자도 최근에 관심이 많았다. 일반적으로 금은 인플레이션 헷지와 정치·경제적인 리스크가 높아질 때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다. 일반적으로 달러강세가 되면 국제 금 가격은 하락 하게 된다.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골드바, 골드뱅킹, KRX금시장, 금 ETF, 금 관련 펀드 등이다.

골드바는 매입할 때 수수료 및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며, 매도할 때도 수수료 부담이 있다. 그래서 골드바 투자가 필요한 경우는 금 가격이 과도하게 저평가 돼 있을 때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부유층에게 필요한 투자방법으로 생각된다. 골드뱅킹은 금 통장에 금으로 적립된다. 가격은 환율과 국제 금 시세에 따라 매입하고 매도하며, 수수료는 1%정도 매입 매도 시에 있으나 주거래 은행을 통해 일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현재는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향후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과세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뒀야 한다. 그 외 금 펀드 상품들은 변동성이 상당히 크므로, 고점일 때 매수한 경우 리스크가 상당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금리와 경기변화에 따른 투자전략을 살펴봤는데 금리, 환율 등의 기본적 상관관계와 자산가격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자산시장에는 정답이 없다. 확신에 의한 집중투자보다 글로벌 자산배분에 의한 분산투자가 중요하다. 그리고 'BLASH'(Buy Low And Sell High,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원칙만 잘 지킨다면, 즐거운 투자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BIZart**



글.
부동산114(주) 함영진 리서치센터장
yjham@r114.com

유예기간 종료 앞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향방은

2018년 시행...

수도권 재건축 추진단지 142곳 8만9597가구 사정권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집값 급등기인 지난 2006년 도입됐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3년부터 2017년말까지 제도 시행이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부담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과 준공인가일이 된다. 초과이익은 재건축 종료시점(준공인가)의 집값에서 개시시점(추진위 설립 승인)의 집값과 시세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빼 계산한다.

부과금액은 초과이익 규모(과세표준)에 따라 구간별로 10%에서 최고 50%의 누진방식으로 산정된다. 예컨대 초과이익이 1억원이면 인당 1600만원이 부과되고, 2억원일 경우 인당 6500만원씩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부과금 산정방식이 생각보다 복잡한데다 실제 적용사례가 적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부담금의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재건축 과정에서 집값이 많이 오르면 그만큼 부담금 규모는 커지게 되는데, 재건축 사업이 장기화된 서울 강남권과 여의도 일대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수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다.

과거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를 보면 서울에서는 ▲송파구 풍납동 이화연립(1인당 33만원) ▲중랑구 묵동 정릉연립(1인당 144만원) ▲중랑구 면목동 우성연립(1인당 263만원)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1인당 5544만원) 등 소수에 불과하고, 대규모 아파트가 아닌 소규모 연립단지의 재건축 사업장뿐이었다.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면 조합원의 부담이 늘고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단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인허가 절차마다 최소 3~6개월씩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사업시행인가 단계이거나 건축심의를 임박한 단지를 제외하고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 추진단지 중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의 사정권에 있는 단지는 총 142개, 8만9597가구에 이른다. 이들 아파트는 현재 조합설립인가 단계까지만 진행된 상태로, 올해 말까지 남은 기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가지 못한다. 아직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준비 절차 등에 머물며 첫 단추도 끼우지 않은 '잠재적' 추진 단지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다.

반면 현재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단계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거나 피할 가능성이 높은 단지는 29개, 2만9188가구다. 대표적으로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 반포동 삼호가든3차, 경기 안산시 군자주공7단지 등은 초과이익환수제에서 자유롭고 강동구 둔촌주공1~4단지 등도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담금이 준공시점에 법인인 재건축 조합에 부과되고 준공 당시 조합명부에 들어있는 조합원이 이를 부담하는 구조라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 중간단계에 매입한 매수자는 상당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다. 제도 유예 연장 불발로 2018년 시행이 본격화되면 서울·경기·부산 등 도심 내 주요 재건축 아파트는 수익률과 투자심리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최근 한국주택협회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기간을 3년 더 연장하자는 입장을 국회, 정부에 '국민 주거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한 주택 분야 정책과제'로 제안했고, 강남권 10여개 재건축 조합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유예하거나, 개정·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부당성, 개발이익 추정방식의 문제, 이중과세 등 과잉금지 위반논란 등을 고려해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유예를 주장하는 측과, 잠재적 평가이익이 아닌 시세를 기반으로 한 실현이익을 토대로 한 부담금이라는 점 그리고 정상적 상승분을 초과하는 가격에서 비용을 제외한 것을 이익으로 간주해 그 크기에 따라 비례적으로 부과하니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현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제 공은 새 정부로 넘어갔다. 관련법 도입이후 그 유효성을 제대로 검증할 기회 없이 몇 년간 유예 조치된 상황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의 향방은 하반기 주택시장의 또 다른 불씨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제도의 시행이 주택시장에 가해지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해 법 운영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때다. **BIZart**



글.
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alentino@naver.com



수익형 호텔 투자... 완공 전 부가가치세 돌려받자

임대업 목적투자 환급 받았다면, 준공후 사업해야 추징 없어

최근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 영종도, 제주, 평창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익형 호텔 투자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수익형 호텔에 투자하는 이들은 적은 투자금에도 수년간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매력이라 말한다.

수익형 호텔 투자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수익금액에, 아울러 세법상 제도를 적절히 이용한다면 추가적으로 현금유입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제도가 바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제도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란 일반사업자가 상대방 일반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재화를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상대방 일반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에 포함된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환급시기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30일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횟수가 상반기 실적분 1회, 하반기 실적분 1회 총 연 2회에 불과해 소자본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수익형 호텔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시점이 투자자금 지급시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자금 운영상의 불편함을 지적하기도 한다.

세법에서는 투자시점과 부가가치세 환급시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를 두고 있다. 조기환급신고를 통해 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 후 15일 이내 환급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조기환급신고는 연 2회에 머물고 있는 확정신고와는 달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할 때마다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연 12회 즉, 매달 환급신고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실제로 분양받은 투자자들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

먼저, 분양 계약 후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일반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다. 구비서류는 분양계약서, 신분증 등이다. 그 다음, 계약 상대방인 분양 시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한다. 마지막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환급금을 수령할 개인명의로 계좌번호를 기재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한다.

예를 들어 2017년 4월1일에 수익형 호텔을 분양 계약하고 시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까운 시일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5월25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이행하면 6월10일 이내에 계약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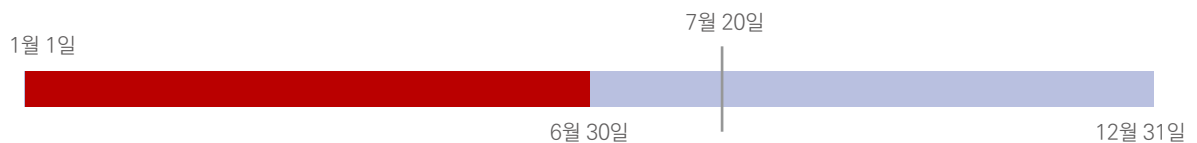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즉, 상반기 중 계약한 투자자는 반드시 7월20일 이내, 하반기 중 계약한 투자자는 반드시 익년 1월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6월말, 12월말에 계약한 투자자들은 사업자등록시점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둘째, 호텔 위탁운영 및 일반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투자해 투자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았다면, 부동산 준공 이후 실제로 호텔 위탁운영 또는 일반임대업을 영위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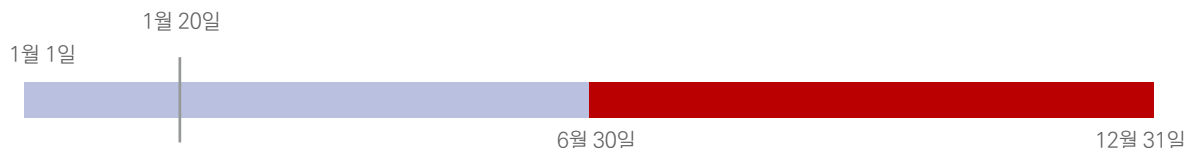
준공이후 10년 이내에 분양받은 부동산을 실제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이용한다거나 임차인이 호텔 또는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당초 일반임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동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되므로 유념해야 한다. **BIZart**

사업자등록신청 시점 별 환급가능구간



7월 20일 이전 사업자등록의 경우 1년 전 기간에 대하여 환급신고 가능.

7월 20일 이후 사업자등록의 경우 7월1일~12월1일까지의 기간만 환급신고 가능.(붉은색 구간 불가)



1월 20일 이전 사업자등록의 경우 전년도 7월1일~12월31일과 당해연도 1월1일~6월 30일 대하여 환급신고 가능.

1월 20일 이후 사업자등록의 경우 1월1일~6월30일까지의 기간만 환급신고 가능.(붉은색 구간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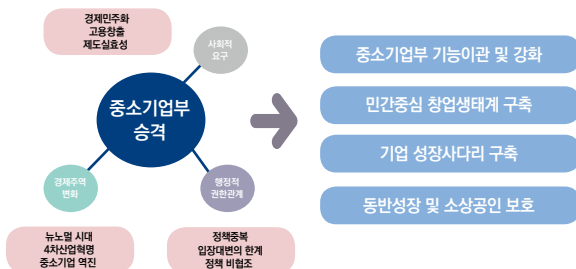
글.

중기이코노미 www.junggi.co.krjunggi@junggi.co.kr

산업부 고용부 미래부 분산 중소기업 가져와야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중기청이 '부'로 승격되면 ▲기능이관 및 강화 ▲민간 중심의 창업생태계 구축 ▲중소→중견→글로벌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 구축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소상공인 보호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에 분산돼 있는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넘겨받아야 한다.

| 중소기업 승격의 방향과 과제 | 자료: 성균관대 김경환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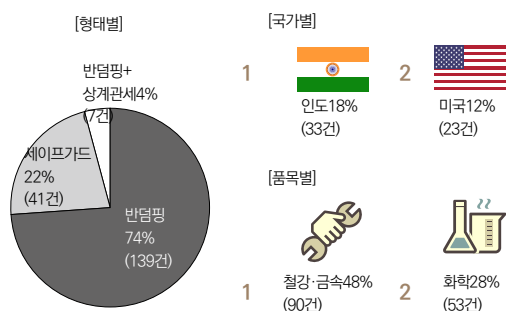
소상공인 '기만'하는 온라인 광고대행 요주의

온라인 광고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마케팅 수단이다. 하지만 그 필요성이 커지면서 분쟁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온라인 광고 분쟁상담 및 신청건수는 2010년 70건에서 2016년 1279건으로 6년새 무려 1727%가 증가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유를 보면 '기만에 의한 계약취소' 관련 조정신청이 2016년 기준 47%로 가장 많다. 또 광고유형별로 보면 검색광고에 대한 조정신청이 2016년 기준 54.8%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업 21.5%, 쇼핑물 16.2%, 부동산 9.3%, 도소매 8.1%, 미미용 7.8% 등 전체의 63%가 영세자영업이다.

반덤핑 뭐죠?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두드려라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조치 등 수입규제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초 기준 우리나라는 30개국으로부터 총 187건의 수입규제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문을 열고 수입규제 통지를 받아도 대응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 對한국 수입규제 현황 | *2017년 4월초 기준 30개국 총 187건(규제중 139건, 조사중 48건) 자료: 한국무역협회통상협력실



개인사업자 '사업소득'도 연구개발비세액공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연구개발비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개인 자영업자(본인)가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한 후 자녀가 연구요원일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현행 행정해석(서면법령소득-2869, 2016.02.26.)에 의하면,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인 연구요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직원의 범위에 포함된다.

원인·과실 불문 산재로 부상 3일 이상 휴업했다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산업재해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산업재해 전부를 말한다. 다시말해 운동경기·행사 중 사고, 사업장 내·외 교통사고 등 재해원인을 불문하며, 작업과정에서 근로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역시 관계없이 보고대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선행디자인조사...잠수함디자인, 비밀디자인 유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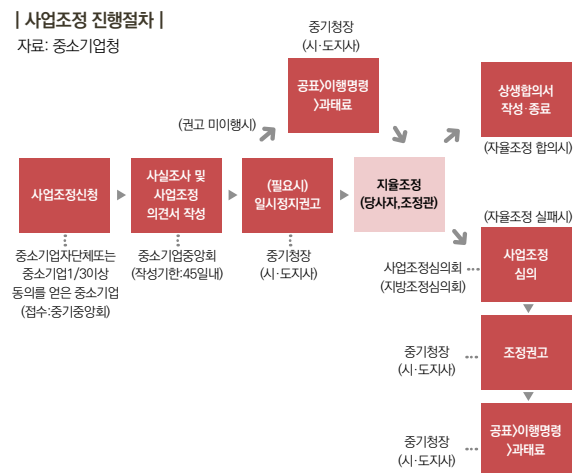
디자인도 특허와 마찬가지로 선행조사가 중요하다. 그러나 선행조사를 거치더라도 검색이 불가능한 디자인이 존재한다. '잠수함디자인'과 '비밀디자인'이 이에 해당한다. '잠수함디자인'은 조사 당시에는 검색되지 않지만 출원 후에 등록·공개되는 디자인을 말한다. '비밀디자인'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유지되는 디자인을 말한다.

대기업 앞으론 '뇌물'주고 골목시장 침탈 못한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시 대·중소기업간 공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상생기금 등 금전을 요구 또는 제안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율조정회의에 2회 이상 무단 불참하는 경우 조정심의회는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 사업조정 진행절차 |

자료: 중소기업청

자세한 내용은 중기이코노미(www.junggi.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키스갤러리 이유미 아트컨설턴트
kissgallery@naver.com

1 C#, Mixed Media on canvas 53x45cm 2017

Wavering, 흔들리는

YJ 작가



2 C#, Mixed Media on canvas 53x45cm 2017(작)

3 C#, Mixed Media on canvas 53x45cm 2017(우)

나의 이전 작업들은 인간 존재의 이유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의문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인간과 삶에 대한 사랑없는 판단이나 철학적 지식의 일부분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공허한 결론이 전부였다. 이러한 해결될 수 없었던 삶의 의문들이 나의 새로운 경험과 사랑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삶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 듯 위태로운 여정을 이어나가며 매순간 무엇인가에 의존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상실한 채 늘 풀리지 않는 답을 찾아 반문하며 소모적인 과정들을 반복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좌절과 회복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된다. 여기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영원히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다른 것으로부터 빈 공간을 채우려는 노력들도 끝내 그저 살아가는 것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C#, Mixed Media on canvas 53x45cm 2017

I am the vine, ye are the branches: He that abideth in me, and I in him, the same bringeth forth much fruit: for without me ye can do nothing.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5)

삶과 죽음의 여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물리적인 것에 의해 극복되거나, 모두가 철학자가 되어 자아 성찰을 해야 하는 심오한 무엇이라기보다, 삶과 죽음 그 자체로서의 모습일 것이다. 이때에 여러 삶의 조각들을 하나로 이어 붙이기에는 인간은 홀로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다. 하나의 작은 모퉁잇돌이 사랑의 씨앗이 되어 집의 형상을 갖추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인간 역시 자연 안에서 그저 작은 존재일 뿐이다. 보이지 않는 바람에도 흔들리는 연과 같이 나약한 인간은 하나님과는 떨어져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다행인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연과 끈이 서로 떨어지지 않으면, 그 끈을 스스로 놓아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소망을 하늘에 두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것 없는 인간의 삶에서 우리들은 늘 처음인 것 같이 새롭게 거듭나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5 C#, Mixed Media on canvas 91x65cm 2017(좌)

6 C#, Mixed Media on canvas 53x45cm 2017(우)

This is my commandment, That ye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요한복음 15:12)

인간이 자연 안에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며 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과거나 현재에나 늘 진행형이었다. 현재를 살고 있는 나 역시 그것을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그 과정에서 답을 찾는 이도 있을 것이고, 그저 살아 내는데 열심이기만 한 삶도 있을 것이다. 의미를 알지 못하는 기계적인 삶을 누구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기 원하지 않을 것이기에 나 역시 내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고, 삶과 죽음 그 자체로서 깨달을 수 있었다.

사랑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각자의 여정 속에서 깨닫게 되는 순간이 나에게 주어졌듯이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음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오직 주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약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알아가길 원할 뿐이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의미이고, 이유이며 전부이기 때문이다.

삶의 여정 안에서의 나의 모습들은 앞으로도 늘 불안정하게 끊임없이 흔들리며 깨어져 나갈 것이다. 몇 번의 깨달음과 감격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저 매순간 작은 것에도 충실하며 타인을 사랑으로 권고할 수 있는 마음을 이어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속에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한다. **BlZart**



7 C#, Mixed Media on canvas 116x91cm 2017

YJ

개인전

- 2017 'Wavering' (키스갤러리, 서울)
- 2014 'The Characters' (키스갤러리, 서울)
- 2013 '순환의 단계' up-rise (칼리파갤러리, 서울)
- 2011 Another World II 'never-never land' (미술공간 現, 서울)
- 2010 Another World (미술공간 現, 서울)
- 2007 제2회 국제인천여성미술 비엔날레 한국여성작가개인전(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인천)
- 2005 제1회 개인전 (동덕 아트 갤러리, 서울)

주요 그룹전

- 2015 Lovely Days(롯데호텔갤러리, 서울)
- 2014 Asia Contemporary Art Show(콘래드호텔, 홍콩)
- 2014 크리스마스 소품전(키스갤러리, 서울)
- 2013 Day by day (아산병원 갤러리, 서울)
- 2012 '6 Nomads' (비엔넷 갤러리, 서울)
- 2012 Home table deco (gallerypavilion)(코엑스, 서울)
- 2010 대한민국 미술축전 (킨텍스, 일산)
- 2010 NICAF 남부국제현대미술 아트 페어 (중국, Tianjin)
- 2010 흥연아트센터개관전(흥연아트센터, 의정부)
- 2010 '상상 가까운 공간' 전 (삼청동 갤러리영, 서울)
- 2010 동덕 창학 100주년 기념전 (동덕아트갤러리, 서울)

그 외 그룹전 다수

세경 대학교 미술치료학과 외래교수 역임

인덕 대학교 교양학부 외래교수 역임

글.
김현성 아트브런치 대표
artmanse21@naver.com

4인의 헐리우드 컬렉터

헐리우드에서는 유명 배우나 감독들이 모자를 꼭 눌러쓴 채 갤러리를 드나들며 컬렉션을 하는 것이 더 이상 낯선 풍경은 아니다. 그들은 줄곧 세계 톱 클래스 아트컬렉터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미술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아트컬렉터로서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4인의 헐리우드 컬렉터들을 알아본다.



1. Madonna(출처 ko.m.wikipedia.org)(위)
2. Leonardo DiCaprio(출처 ko.wikipedia.org)(아래)

프리다 칼로를 사랑한 마돈나 Madonna

끝없는 스캔들을 몰고 다니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팝의 여왕 마돈나. 그녀가 가장 사랑한 화가는 뜻밖에도 멕시코 여성화가 프리다 칼로(1907~1954)다. 도발적이고 그로테스크하기까지 한 칼로의 작품을 처음 본 순간 마돈나는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수백만 달러나 되는 칼로의 작품들을 샀다. 페미니스트들의 우상이었던 칼로의 거칠고 고통스러운 작품들에 마돈나 자신의 순탄치 않았던 삶이 투영된 걸까. 진중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보였던 마돈나이지만 종교나 반전, 동성애 등과 관련된 논쟁거리를 양산했던 걸 보면 내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반증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마돈나는 전문 딜러를 고용해 작품 컬렉션을 할 만큼 전문적인 안목을 지녔다고 한다. 또한 30년 이상 예술작품을 수집해온 그녀의 컬렉션에는 자신만의 철학과 일관성이 있다는 평가다. 주된 컬렉션 대상은 인간의 존재론적 성찰이나 여성성을 주제로 다룬 작품들이다. 수집품들이 마치 사회적 관습과 금기에 늘 도전해왔던 그녀의 인생과 닮아 있다. 현재 300점이 넘는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고 그 가치는 1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다 칼로 이외에도 한 때 연인 사이였던 장 미셸 바스키아의 작품과 신디 셔먼의 사진 작품, 피카소의 여인 초상들, 프랜시스 베이컨, 살바도르 달리 그리고 트레이시 에민 같은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까지 컬렉션의 영역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젊은 시절 포르노 잡지의 모델일을 했고 무용수를 꿈꾸며 17세에 가출을 하기도 했던 디트로이트 출신의 소녀가 지금은 뉴욕현대미술관(MoMA)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미술관 후원자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앞으로는 그녀가 단지 팝의 여왕으로만 기억될 것 같지는 않다.

가고시안에서 특별관리하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Leonardo DiCaprio

이제 디카프리오의 이름을 '세계의 200 컬렉터' 명단에서 확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됐다. 그가 세계의 톱 아트컬렉터가 될 수 있었던 8할은 물려받은 유전자 덕분으로 보인다. 그의 부모가 피렌체의 한 미술관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보면서 뱃속에 있던 아이의 이름을 '레오나르도'라고 지었다니 말이다. 게다가 그의 부친은 이탈리아 출신의 만화가였다. 아버지를 따라 서점을 순례하며 당대의 유명한 만화가, 삽화가들을 만나



3 George Lucas (출처 Wikimedia Commons)



4 Brad Pitt(출처 Wikimedia Commons)

며 디카프리오의 예술의 세계에 눈을 떴다.

그가 미술작품을 처음으로 컬렉션 하기 시작한 시기는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을 찍고 난 다음부터라고 알려졌다. 그리고 가장 먼저 수집한 작품은 바스키아 드로잉. 미술품 수집에 폭 빠진 이후로 그는 아트바젤이나 뉴욕 첼시의 갤러리들을 돌아다니며 작품감상을 하는 게 유일한 취미가 됐다.

현재 디카프리오의 미국, 홍콩, 영국 등에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가고시안에서 특별관리하는 컬렉터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그의 컬렉션 목록에 프랭크 스텔라, 장 미셸 바스키아, 살바도르 달리, 무라카미 다카시 등 세계 미술계를 쥐락펴락하는 현대미술작가들이 올라 있기 때문이다. 컬렉션 스타일은 두 번 세 번 고민하지 않고 첫 느낌이 좋은 작품을 단박에 사는 편이라고 한다. 현재 그의 컬렉션은 가치는 2,000만달러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그는 환경보호단체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재단'을 설립해 멸종야생동물을 보호하고, 환경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는 등 환경운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조지루카스 George Lucas

영화 감독이자 제작자인 조지루카스는 서부극 일색이었던 헐리우드의 영화계에 공상과학영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선보이며 세계 영화계를 뒤흔들었다. 대표작으로는 <스타워즈> 시리즈와 <인디애나 존스> 등이 있다. <스타워즈>를 6편이나 제작했던 그는 자신의 영화사 '루카스필름'을 월트디즈니에 40억 달러에 매각하며 다시 한 번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영화사를 매각하며 그는 본격적인 아트컬렉터의 길로 들어선다. 컬렉션의 방향은 명확하다.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회화와 일러스트, 만화, 드로잉, 설치영상 같은 작품들이다. 특히 미국인의 평범한 일상을 위트있게 표현한 노먼 록웰의 회화작품과 드로잉을 50여점 이상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찰스 솔츠나 짐 데이비스 등과 같은 만화가들의 작품과 미국 근대사진의 선구자로 불리는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의 작품들도 컬렉션 리스트에 오르고 있다.

한편 루카스는 작품 속에 이야기가 담겨있는 '내러티브 아트' 장르를 집중적으로 컬렉션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희귀성을 인정받아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는 향후 세계 최초로 '내러티브아트뮤지엄(Lucas Museum of Narrative Art)'을 세울 계획을 발표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40여년간 영화에 쏟았던 열정적인 시간들은 막을 내리고 인생2막에는 아트컬렉터로서의 삶을 살 것이라며 활짝 웃었다.

브래드 피트 Brad Pitt

안젤리나 졸리의 전남편이었던 브래드 피트의 미술 사랑도 유명하다. 특히 졸리와 피트가 부부시절 영국의 거리미술가 뱅크시의 작품을 사기도 해 그들의 취미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브래드 피트를 아트컬렉션의 세계로 안내한 사람은 세계적인 컬렉터인 브로드 부부. 이 부부는 피트에게 어둡고 진지한 화풍을 선보였던 독일 신라이프치히 화파의 대표작가인 네오라우흐의 작품을 100만달러에 사도록 독려했다는 에피소드가 있다. 선뜻 구매한 걸 보면 그의 안목 또한 비범하다.

가구나 조각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는 '디자인 바젤'에 참여한 한국의 한 갤러리에서 장진 작가의 다완(창그릇)과 머그컵 세트, 이현정 작가의 도자기 테이블과 벤치를 구입했다고 알려져 국내 미술애호가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최근 브래드 피트는 안젤리나 졸리와 이혼한 후 우울증을 이기기 위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조각 작품을 만드는 데 열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BIZart]

글.

안진국

미술평론가, 종합인문주의 정치비평지 『말과활』 편집위원

critic.levahn@gmail.com

빛과 공간의 예술가



1 제임스 터렐, 〈하늘공간(Skyspace)〉, 2012. (출처: <https://mulpix.com>)(작)
2 제임스 터렐, 〈지평선의 방(Horizon Room)〉, 2012. (출처: <http://bestofinsta.org>)(우)

강원도 원주에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2014.5.28.)가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관이자 다른 곳에는 없는 꿈같은 뮤지엄'이라고 소개한 미술관이 있다. 바로 세계적 건축가 안도 타다오(Ando Tadao)의 설계로 8년에 걸쳐 지은 '뮤지엄 산(SAN)'이다. 이곳은 독특한 건축과 수려한 자연경관, 한국의 대표 회화와 판화, 세계적인 조각품들이 전시되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이 목이 집중되는 미술관이다. 하지만 사실 그곳의 백미는 따로 있다. 바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제임스 터렐 전용 전시관이다. 빛과 공간의 예술가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 1943~)의 작품이 바로 그곳에 있다.

자연이 작품이 되는 공간

제임스 터렐은 '빛'과 '공간'을 통해 우리에게 송고함을 경험케 하는 작가다. 그가 이러한 감성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어린 시절 퀘이커(Quaker)교의 독실한 신자였던 부모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 17세기 영국교회로부터 분리된 기독교의 한 교파인 퀘이커교는 모든 사람이 자기 안에 지닌 신성(神性)만 기른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종교다. 특히 각자가 침묵을 통해 내면의 빛을 볼 수 있게 하려고 침묵의 예배를 드리는 특징이 있다. 터렐은 이러한 부모의 종교성 아래에서 침묵과 정신적 수련을 중요시하는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 이런 종교적 교육의 영향이 그의 작품에 스며들어 종교적 송고미가 작품에서 배어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마치 수련을 하듯 침묵 속에서 오랜 시간 바라보고 경험하며 깊이 숨어있는 자신 안의 신성을 발견하도록 이끄는지도 모르겠다.

그의 작품은 단순히 공간에 놓여 있는 이동 가능한 작품이 아니다. 특히 그의 최근 작품은 공간이며, 건축이며, 자연이 되고 있다. 아시아 최대 규모라는 뮤지엄 산의 터렐 전용 전시관에 오직 4개의 작품만으로 구성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전시관은 터렐의 작품에 맞게 건축된 건물로 건물 자체가 터렐의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놓이는 작품이 아니라 건축하는 작품이기에 규모가 큰 4개의 작품만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 있는 4개의 작품은 모두 빛에 의한 작품으로 2개는 자연광을, 2개는 인공조명을 경험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자연광에 의한 작품은 하늘을 향해 뚫려있는 타원을 가진 〈하늘공간(Skyspace)〉과, 하늘과 지평선이 맞닿는 곳으로 뚫려 있는 사각형을 가진 〈지평선의 방(Horizon Room)〉이다. 터렐은 타원형으로 뚫린 〈하늘공간〉의 천장과 사각형으로 뚫린 〈지평선의 방〉의 벽에 두께를 없애으로써 뚫린 곳을 본다는 느낌이 아닌, 마치 평면 LCD 화면이나 얇은 사진의 하늘을 보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그 하늘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인지의 교란이 일어난다. 마치 벽에 걸려있는 마그리트의 하늘 그림을 보는 듯 느끼다가 그 하늘이 진짜 하늘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순간적인 인지의 교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바로 착시의 교란이다. 〈하늘공간〉과 〈지평선의 방〉은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일상적인 하늘과 지평선을 아주 특별한 작품으로 만든다. 예술이 미메시스(mimēsis, 모방)라고 말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터렐은 예술을 원본 자체로 제시함으로써 원본의 재현(再現, representation)으로서 예술을 넘어서었다. 그는 일상의 자연하늘을 그대로 작품으로 감상하게 만들으로써 비재현적이면서도 낯설지 않은 현대미술을 완성하고 있다.

빛이 주는 착시의 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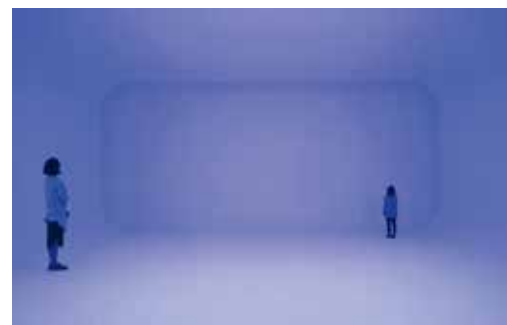
터렐은 자연 그대로를 예술작품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인공조명을 사용하여 신비로운 공간을 창조해 내는 것이 특기다. 밝은 날 진짜 하늘이 작품이 되는 〈하늘공간〉과 〈지평선의 방〉도 특정 일몰시간이나 우천 시에는 인공조명에 의해 신비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스페이스 디비전(Space-Division)’으로 명명한 이 프로그램은 자연광이 약해지는 시기에 점진적으로 색이 변하는 내부조명을 비춰서 자연광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색채의 감성을 느끼게 한다.

사실 인공조명이 주는 신비로움에 완전하게 빠져들게 하는 작품은 독일어로 ‘완전한 영역’을 뜻하는 〈간츠필드(Ganzfeld)〉와 썩기모양의 작업을 뜻하는 〈웨지워크(Wedgework)〉라 할 수 있다. 〈간츠필드〉는 모서리를 둥글게 한 거대 공간에서 변화하는 조명의 색채가 주는 빛의 충만함과 착시를 경험케 한다. 감상자는 먼저 얇고 거대한 평면 색면종이 같은 곳으로 계단을 통해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큰 공간과 맞닥뜨리며 신비로운 느낌을 받게 된다. 이 공간은 마치 우주 공간처럼 무한히 넓은 느낌을 주며, 비현실적인 상황에 자신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그곳에서 감상자는 시시각각 변하는 내부조명의 색채와 거리감을 측정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 여러 가지 신비로운 착시 현상을 체험하게 된다. 〈웨지워크〉는 터렐이 오랜 시간 빛을 연구해온 작가의 고민과 열정이 담긴 작품이다. 이 작품은 붉은 내부 조명이 착시현상을 일으켜 내부 공간에 마치 부연 안개가 끼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손에 잡히지 않는 광선이 가진 비물질성이 손에 잡힐 것 같은 부연 안개의 물질성으로 감상자 앞에 드러나는 것이다. 당연히 이건 환영일 뿐이다. 그 어디에도 부연 안개는 존재하지 않는다. 터렐의 빛에 대한 집요한 연구가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제임스 터렐 작품의 완성은 단순히 놓여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감상자가 바라보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아마도 감상자가 그의 작품 안에서 침묵의 명상을 통해 자신 안에 있는 신성을 발견하는 것이 그의 작품이 완성되는 순간일 것이다. 그래서 터렐의 작품을 완성하는 것은 어쩌면 감상자일 줄도 모른다. 기회가 된다면 뮤지엄 산에서 제임스 터렐 작품을 감상(체험)하길 강력히 권한다. **BIZart**



3 제임스 터렐, 〈간츠필드(Ganzfeld)〉, 2013. 공간 밖의 모습
(출처: <http://orangeblog.kr>)



4 제임스 터렐, 〈간츠필드(Ganzfeld)〉, 2013. 공간 내의 모습
(출처: <http://www.museumsan.org>)



5 제임스 터렐, 〈웨지워크(Wedgework)〉, 2014.
(출처: <https://www.mfah.org>)



6 제임스 터렐 (출처: <http://jamesturrell.com>)

글.

김정휘 미술평론가, 관념미학어워드 집행위원장
himanyoman@naver.com

관념미학 어워드 수상작

[관념미학 어워드 선정기준]

관념미는 작가의 관의 독창성의 수준이 높거나 상식으로부터 진일보할수록 발생하는 지적인 특성의 아름다움입니다. 관념미의 발현경로는 조형이론, 표현수단, 표현과정, 표현방식, 표현양식, 모티프로 볼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창적 조형이론이 존재하거나 관념의 미개척지를 개척하고 있는 경우(최상)
2. 표현수단, 표현과정, 표현방식, 표현양식, 모티프에서 뚜렷한 독창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상)
3. 타인의 양식에 기대어 있으나(특정인의 작품에 대한 연상작용이 강한 경우를 의미함) 2번에서 언급한 부문에서 독창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중)
4. 타인의 양식에 기대어 있으며 개성은 있으나 독창적 조형관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경우(하)



〈Nika neelova 작품〉

제49회 관념미술어워드 수상작가 Nika neelova

런던 거주, MA Fine Art Sculpture, Slade school of Art, London

Nika neelova 작가는 기하학적 패턴의 거대한 오브제를 천장 부근의 구조물에 느슨하게 설치한 참신한 표현방식을 바탕으로 '상'에 해당하는 관념미를 드러내었기에 제49회 관념미술어워드 수상작가로 선정되었다. 작품의 구성을 보면 모노크롬의 안정적인 색의 리듬을 바탕으로 크기가 일정한 형태들을 접합하여 세부적으로는 빈 공간들이 노출되는 반복적인 운율이 내포된 아상블라주를 제작한 후 이를 바닥에 전시하는 통상적인 접근이 아닌 전시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천장의 한 지점에 걸쳐 놓음으로써 실내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설치미술의 다양성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다. BIZart



Nika neelova

러시아 모스크바 출생/ 런던거주

Education

2011 MA Fine Art Sculpture, Slade School of Art, London

2008 BA Fine Art Interdisciplinary, Royal Art Academy, The Hague

2004 Stage Design Formation Course, Lenkom, Moscow

Collections

DRAF David Roberts 아트 파운데이션, 런던

사치 갤러리, 런던

PERMM 현대 미술관, 러시아

Biedermann 미술관, 독일

Beth de Woody 컬렉션, 뉴욕

Jason Martin 컬렉션, 포르투갈

Levett 컬렉션, 런던

Land Securities Commission, 런던

Beckers 컬렉션, 스웨덴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네덜란드 개인 소장품

글.

오민수 작가 홍익대학교 동양화 박사 수료

dat1127@naver.com

산수를 거닐다

여행이라는 것이 시기와 장소가 정해져 있으랴. 봄은 봄이어서, 여름은 여름이어서, 산은 산이어서, 바다는 바다여서 좋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머문 자리를 뛰쳐나와 여행을 떠난다. 여행을 떠나는 목적은 각기 다를 것이다. 하지만, 새로움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은 여행을 더욱 즐겁게 한다. 아마 이러한 여행은 사회의 문화 형성과 맞물려 발생하지 않았을까? 요즘 우리는 공휴일이 길어지거나, 날씨가 무더워져 휴가철이 되면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한다. 6월은 그 여행의 설렘을 주기에 충분한 시기이다. 교통의 발달로 다른 국가, 다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요즘 마음만 먹는다면 가지 못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럼 과거에도 그러했을까?

과거의 여행은 자연과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여행을 하노라면 수많은 자연 경관을 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애환을 경험하였다. 옛 문인들은 여행 도중 가옥, 의복, 음식, 생업, 풍속 등의 생활상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그들의 삶에 애정을 갖기도 하였고, 동시에 그러한 현실을 비판하고 자성하는 계기로 삼기도 하였다. 자연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삼기도 하였고, 나아갈 길을 생각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의 문인들은 산천을 유람하면서 우리 산수의 수려함에 점차 매료되었던 것 같다. 진경산수화의 발달로 우리 산천의 모습을 그림으로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우리 산천을 그려야 되는 이유가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 산천의 아름다움을 담은 겸재 정선의 금강산 작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에는 금강산을 가보는 것이 꿈일 정도로 문인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실로 금강산의 아름다움에 대해 직접 보지 않아 설명하기 어려우나 겸재의 작품을 통해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어 다행이다. 겸재가 보고 느낀 금강산을 그린 그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 1 장안사(長安寺), 건본담채, 36.0x37.4cm, 국립중앙박물관(좌)
- 2 해산정(海山亭), 건본담채, 36.0x37.4cm, 국립중앙박물관(가운데)
- 3 총석정(叢石亭), 건본담채, 36.0x37.4cm, 국립중앙박물관(우)
- 4 금강내산총도(金剛內山總圖), 건본담채, 36.0x37.4cm, 국립중앙박물관(아래)

지도식 기법 선보인 겸재의 <신묘년풍악도첩>

겸재는 세차례 금강산을 다녀왔다고 알려져 있다. 그 첫 금강산 여행은 1711년(신묘년)이다. 그의 나이 36세 때로 삼연 김창흠과 김시보, 정동후가 떠난 금강산 여행에 동행하였다. 겸재는 첫 금강산 여행을 하면서 <신묘년풍악도첩>을 그렸다. 이 작품은 각 봉우리에 이름을 적어 넣고 금강산의 끝과 끝을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겨 그렸다. 이러한 지도식 표현 방식은 당시에는 만연한 화법으로 금강산 여행을 직접 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자세하게 표현되었다. 겸재는 조선전기와 중기를 이어온 사경산수(寫景山水)와 지도식 기법을 합하여 <신묘년풍악도첩>을 만들었다. 이러한 회화식 지도와 같은 형식으로 금강산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런 이유는 금강산에 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곳의 명소를 상상할 수 있게 하고 여행을 가는 사람에게는 좋은 안내서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신묘년풍악도첩>은 현재 13폭만 남아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현존하는 진경산수화 중 가장 초기의 그림이기도 한 풍악도첩의 13폭은 겸재가 그동안 연마한 기량을 모두 발휘해서 열성을 다해 그린 그림들로 한결같이 초창기의 열기와 조심성이 배어있다. 백색 암봉은 서릿발 같은 상악준을 쓰고 토산은 미가운산법을 써가며 암봉과 토산을 대비시키는 음양조화의 화면 구성을 통해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이 조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화적연(禾積淵), 견본담채, 25.1x32.2cm, 간송미술관(좌)



6 문암관일출(門岩觀日出), 견본담채, 22.5x32.0cm, 간송미술관(가운데)



7 불정대(佛頂臺), 견본담채, 25.7x33.6cm, 간송미술관(우)

두 번째 금강산 여행은 첫 여행 다음해인 1712년 그의 나이 37세 때로 이때 겸재는 <해악전신첩>과 <망천십이경도첩>을 그려냈으나 현재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후 겸재는 김창집의 천거로 벼슬에 올라 35년간 금강산을 탐방하지 못하다가 72세가 되던 1747년에 세 번째로 금강산 사생여행을 하였고 그것이 마지막 금강산 여행이었다. 아마 그 당시는 현대의 도시공간의 변화와는 전혀 달랐겠지만, 나이가 들어 찾은 금강산 느낌이 겸재에게는 많이 달랐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이 여행에서 그려진 <해악전신사생첩>은 1712년 제작한 해악전신첩 30폭 중 21폭을 다시 그려낸 것으로 겸재 말기의 노련함과 원숙미가 더해져 진경산수화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이때 다시 제작한 해악전신첩은 다시 이병연의 제화시를 새로이 넣고 스승 삼연의 제화시는 동문 명필로 강원감사로 있는 우산 홍봉조에게 새로이 쓰게 하였다고 한다.

새로운 <해악전신첩>은 35년 전 <해악전신첩>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질만큼 능숙한 필치와 세련된 화면구성이지만 기본정신과 화법만은 변함이 없다. 확고한 이념과 이론적 바탕위에서 전통화법을 충실히 익힌 기량으로 그 혁신적인 화풍(和風)을 착안해냈기 때문이다. 우리 국토 중 가장 빼어난 경치를 지닌 명승지들의 각기 다른 모습들을 그에 맞게 사생해내면서 터득한 화리(和理)를 모두 쏟아 부었다.

여행이란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설레임과 두려움의 일일 것이다. 요즘처럼 카메라가 발달된 사회가 아니던 시절 겸재의 눈에 담긴 금강산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역시 현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눈으로 보고 느낀 여행의 감흥을 진솔하게 남겨야 되지 않을까? BIZart

글.
아트펀집팀
artbrunch@naver.com

Georgia O'Keeffe & Alfred Stieglitz

조지아 오키프와 알프레드 스티글리츠



- 1 조지아 오키프 작품(출처 Flickr)(작)
- 2 Georgia O'Keeffe(출처 Wikimedia Commons)(가운데)
- 3 Alfred Stieglitz(출처 Wikimedia Commons)(우)

미국 현대미술사의 대표적인 표현주의 화가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 1887~1986)와 사진작가로 명성을 떨친 알프레드 스티글리츠(Alfred Stieglitz, 미국의 사진작가, 1864~1946)는 소울메이트였다. 두 사람은 23년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예술세계를 존중하며 서로의 뮤즈로서 예술적 영감을 나눴다. 오키프는 1946년 인생의 동반자였던 스티글리츠가 죽자 뉴멕시코 사막으로 홀연히 떠나 수도자같은 은둔생활을 하다가 99세에 고독한 생을 마감한다. 말년에 그녀는 사막에 널려있는 동물의 뼈와 해골, 벌 등에서 작품 모티브를 얻어 신비롭고도 추상적인 작품을 선보이며 후세에 영향을 미친다.

오키프는 30세가 되던 해 운명의 뮤즈가 될 52세의 스티글리츠를 만난다. 당시 사진분리파 운동을 주도하던 스티글리츠는 사진계의 거장으로 떠오르던 인물이었다. 그는 뉴욕에 '291갤러리'를 열고 피카소나 세잔같은 유럽의 유명작가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오키프의 전시를 열게 되며 사그라들던 창조력에 불씨가 될 자신만의 '뮤즈'를 만나게 된다.

이 전시를 계기로 오키프는 세계적인 작가들과 작품 수준을 논할 수준에 이르고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는다. 이 전시는 그녀를 미국의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으로 만드는 전환점이 된다. 서로의 작품세계에 열광하며 사랑을 나누던 두 사람은 1924년 결혼을 한다. 이후 스티글리츠는 천여 점에 이르는 조지아 오키프의 포트레이트 사진과 누드 사진을 촬영하고 <조지아 오키프 : 포트레이트(Georgia O'Keeffe : A Portrait)>란 제목의 사진집을 남겼다. 자신의 뮤즈인 오키프를 모델로 자신의 예술혼을 펼쳐보인 것이다. 그의 사진들에선 유독 오키프의 신비로운 삶의 내면이 엿보인다.

반면 오키프는 꽃 시리즈의 작품을 주로 선보였다. 누구도 꽃을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더 천천히 꽃을 바라보게 하고 싶다는 거대한 캔버스에 크게 확대한 꽃을 그려 관람자를 압도하게 만들었다. 그 이후 바위나 동물의 뼈와 같은 자연물로 대상이 옮겨갔음에도 작품 특유의 신비로움은 더해졌다.

그녀는 남편이 사망한 이후 사막으로 이주해서도 작품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사막과 자연이 주는 경외감 속에서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 1986년 사망한 오키프는 그녀의 유언처럼 사막 근처에 한층의 흙으로 돌아갔다. 미우정국은 그녀가 미국의 현대미술 발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해 1996년 그녀의 작품으로 32센트 우표를 발행하기도 했다. **BIZart**